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사람이 떠난 후, 눈시울이 붉다(III)

**보** 내기 번트도 쉽지 않다  
2020 프로야구가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시간 무  
관중으로 진행되었다. 기억을 더  
듬어 보면, 충청지역 구단인 '한  
화 이글스'가 18연패를 달성하면서  
한국과 아시아 프로야구 연패와  
같은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지독한 연패 속에 선수들은 자  
신감을 잃어가고 평상시 쉬게 처  
리하던 플레이도 실수를 연발하  
는 등 안쓰럽기까지 했다.  
무엇인가 꼬이고 잘 풀리지 않  
을 때는 기본에서 출발해야 한다  
는 상식을 잘 알고 있다. 모든 유  
동의 기본은 달라지다.  
달라지가 되지 않으면 모든 운  
동이 출발점에 서기 어렵다. 누구  
나 기초체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경기에 나설 수도 없다.  
야구에서도 마찬가지다. '홀런'  
을 치기도 어렵지만, '안타'도 치  
기 어렵다. '볼넷'이나 '보내기  
번트'도 쉬운 플레이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합류하여



박 여 범

용북중학교 교감·시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는 것이 바로 '보내기 번트'다.  
수자를 1루에서 2루도 보내는 득  
점권 '보내기 번트'는 안타 하나  
에 1점을 취득할 수 있는 야구의  
기초 중에서 기초다.

야구방망이 대신  
꽃 한 송이 들고 들어선 빈소  
축복이 특특 허리 굽히며  
동작 취하는 순간  
코끝 핑하게 어루만지며  
보내오는 감독의 시인  
타석에 들어서 있는 슬픔의  
를 카운트는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  
문상 끝낸 사람들은 저허꺼리  
모여  
베이스에 진루해 있는  
주자의 트레이드 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고  
삼루홈에서 홈으로 내달릴  
준비하는  
영정 속 새내 주위로  
국화꽃 하얗게 피어나고 있는  
찰나  
지상의 마지막 호흡을 모아  
번트를 던디  
사람 보내는 일, 사람이

하는 일이었다.  
· '보내기 번트', 위의 책,  
87쪽, 전누

시인은 고인과의 감정적 거리는  
저마다 다름에서 출발한다.  
'예설하게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냐, 그저 '답답하게 빈소를 찾  
은 사람'도 있고 저마다의 책무  
에 따라 봉부름 전담 하는 흥겨  
분한 사람도 있어, '고인'은 '육  
체적으로 죽은 것'이지, '사회적  
으로 죽은 것'은 아니를 강조하  
다.

박유용 시인의 '보내기 번트'는  
진조한 언어로 장례라는 어두운  
갈감을 느끼기 다른 언어를 사용  
하고 있다.  
'야구방망이' 대신 '꽃 한 송이  
들고 들어선' 빈소에는 '국화꽃  
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있는 찰  
나'에 지상의 마지막 호흡을 보  
내 번트를 던디. 작곡 '사람을 보  
내는 일'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었다.

사설

개성공단 한반도 남북평화도로 건설

한반도 남북평화도로 건설 사  
업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웅진군 신도항 신착장  
에서 서해 남북평화도로 건설  
사업 착공식이 있었다. 평화도  
로 1단계 사업인 인천 영종~신  
도 건설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이 도로는 장기적으로는 북한  
개성까지 이어질 서해 남북 평  
화도로의 시발점이 되는 구간  
이다. 이는 영종에서 신도, 강  
화도, 교동도를 거쳐 북한 해주  
와 개성까지 연결하는 환황해  
권 경제 블록의 주요 기반사업  
이다.  
길이는 영종도~신도~강화·  
교동도 18.0km, 강화~개성공단  
45.7km, 강화~해주 16.7km 등  
80.4km에 이른다. 영종-신도 평  
화도로는 인천 중구 영종도와  
웅진군 북도면 신도리를 잇는  
4.05km 길이의 왕복 2차로 교량  
이다.  
현재 웅진군 북도면의 신도와  
신도, 모도 등 세 개 섬은 다리  
로 연결돼 있다. 그러나 육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해  
야 한다. 평화도로가 완공되면

차량으로 오갈 수 있다. 준공은  
2025년 예정이다.  
자전거 도로를 겸한 보행로도  
갖춰 양공 후에는 자동차 없이  
두 섬을 오갈 수 있다. 웅진군  
북도면은 장봉도를 제외하고는  
신도·시도·모도 등 모든 지  
역을 차량으로 방문할 수 있다.  
인천시는 모도~장봉도 연도  
교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남춘 인천시장은 "평화도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오늘을  
시작으로 평화도로를 강화·개  
성·해주까지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김포시 월곶면  
과 북한의 개풍군을 잇는 보행  
육교와 나무 밧길을 구축하겠  
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포시,  
강화군, 개풍군(북한), 연안군  
(북한), 해주시를 연결하는 '남  
북 1축 간선 교량망'과 '인천공  
항~개성공단 고속도로'를 구  
축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  
올 때 평화도로가 서해 평화 협  
력 벨트의 중심에 서게 되기를  
고대한다.

전주 현대차 수소트럭에 거는 기대

현대차 전주공장이 세계 최초  
로 수소트럭 양산 체제를 갖추  
고 지난해 첫 수출길을 열었다.  
올해는 연간 2천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8만6천 대 판  
매를 목표로 세운 가운데 기대  
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형 수소트럭을 생산  
하고 있다. 수소차는 7개의 수소  
탱크를 갖춰 한 번 충전하면 4  
백km를 달릴 수 있다. 지난해에  
는 스위스로 첫 수출길을 열었  
다. 앞으로 세계 각국에 6만여  
대를 수출할 계획이다.  
국내시장에서도 10년 안에 2만  
2천 대를 목표로 올해부터 판매  
가 시작된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이미 지난해 세계 최초로 수소  
트럭 50대를 수출했다. 이를 시  
작으로 세계 수소 상용차 시장  
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  
인 투자와 연구 개발 노력을 기  
울여 나갈 방침이다.  
수소트럭 생산이 본격화되면  
전북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 30여 곳에도 도움이 예상

된다.  
자동차 생산업체 뿐만 아니라  
부품업체 또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이런 체계들이 골고루 갖춰지  
면 전북은 명실공히 수소트럭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국  
내 판매 활성화를 위해 트럭 구  
입비 2억 원 보조 등 정부의 잇  
단 지원책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원활한 국내 판매를 위  
해서는 무엇보다 수소 충전소  
확충이 시급한 과제다. 전국적으  
로 수소트럭 전용 충전소는 완  
주에 겨우 한 곳 뿐이다. 정부가  
올해 10곳 등 2023년까지 25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지만 부지  
선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충전소 설치 문제를 놓고 주민  
반발이 극심한 해당 지역들도  
있다. 특히 시내권 경우에는 부  
지 확보 문제가 더욱 어렵다. 위  
기에 빠진 상용차 산업이 수소  
트럭으로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  
력과 역할이 절실해지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재언

암행순찰차 일반도로 확대 운영 예정

경찰에서는 교통법규 준수를 유  
도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그동안 고속도로에  
서만 운영하던 암행순찰차를 일  
반도로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몇 년 전 고속도로 순찰탑으로  
로 재직할 당시 출퇴근 시간대에  
외제차가 칼 치기 등 난폭운전,  
과속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단속한 사실이 있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등은 교  
통사고 위험이 크고 중상이나 사  
망 등 대형 사고로 이어져 인적,  
물적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난폭운전은 불법정당수인을 상  
대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  
속,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진  
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  
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불 이상  
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행할  
시 단속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또한 입건 시는 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 구속 시는 면허가 취

소된다.  
보복 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위 행위를 단 1회라도 행할 시  
성립 가능하다.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발생 시  
형법 적용하여 사안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  
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암행순찰차 운영으로 칼치기 등  
난폭운전, 보복운전 및 관공버스  
등 대형버스의 음주가무 등이 현  
저히 감소하여 그로 인한 사고  
및 인적 물적 피해도 감소추세에  
있다.  
경찰에서는 일반도로 중 사업용  
차량이나 주요 법규위반으로 인  
한 사고 다발장소에 대하여 난폭  
운전, 보복운전, 신호위반 및 중  
양선 침범 등 고위험 위반행위와  
양체운전 및 끼어들기 등 고비난  
위반행위에 대하여 3월말까지 현  
장 프래카드 게시 및 포스터, 경  
찰 관서별 SNS 등 온라인 홍보  
기간을 거쳐 4월부터 집중운영할  
계획이다.  
전근수 무주경찰서 민원실장 경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가족 품에 안긴 나이저리아 피랍 여중생



지난달 26일 나이저리아 장가베의 국립여자중학교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다가  
풀려난 한 학생(왼쪽)이 3일(현지시간) 가족과 재회하고 있다. 피랍 학생 279명은 2  
일 무사히 풀려나 잠피라주 주도 구사우로 돌아온 후 장가베에서 마침내 가족과 재  
회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